

여수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힘 보탠다

TF 구성 세부 지원 계획 추진 입장권 구매 등 상생 협력 대규모 관광객 맞기도 만전

여수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여수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한 입장권 구입 등을 통해 인근 지자체 간 상생 협력하고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정원박람회 지원 TF를 구성해,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특히 입장권 구입과 홍보 지원에 우선순위를 뒀다. 이달 말까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박람회 벤치마킹 등을 위해 3000매 가량을 사전 구매해 배부하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여수시사회복지

시설연합회에서도 2000매 가량을 구매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수산단 입주기업과 각종 사회단체도 구매 행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시를 찾은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관광 종합 대책을 세우는 등 대규모 관광객 맞이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대책은 ▲정원박람회 입장권 소지자 관광시설 할인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음식·숙박업소 친절서비스 개선 ▲도심지 환경 정비 등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의 국제행사 등을 적극 지원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이라며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상황에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TF 회의를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순천시 경력이음 바우처카드 20만원→50만원 확대 지급

순천시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경력이음 바우처카드 포인트'를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경력이음바우처 사업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인센티브(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강좌 수강료, 취업 준비를 위한 도서구입, 면접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여성이다. 전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30세 이상 65세 이하이면서 전남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월24일까지 받는다.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여수 전통시장 5곳

20억원 들여 현대화 추진



여수시는 최근 도깨비시장 아케이드(지붕 통로)를 설치해 방문객과 상인 편의를 높였다.

여수 전통시장 5곳이 올해 20억원을 들여 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여수시는 서시장과 쌍봉시장, 여수수산물시장, 서시장주변시장, 제일시장 등 5개 전통시장이 올해 '전남도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12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모에 선정되면서 여수시는 모두 2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들 시장의 편의시설과 낡은 시설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서시장에서는 오래된 공용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서시장주변시장은 아케이드(지붕 통로)를 정비한다. 쌍봉시장 옥상 주차장은 방수 공사를 벌여 방문객과 상인 편의를 높이기도 했다. 제일시장은 오래된 타일과 콘크리트 부분을 정비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최근 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모두 15건의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도깨비시장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덕양시장과 쌍봉시장에서는 전기 설비를 보수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 초·중고 입학·전입생에 축하금 20만원

구례군이 지역 17개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전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1인당 20만원씩 준다. 구례군은 '구례군 입학준비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초·중·고교 1학년 입학생에게 올해 처음 입학준비금을 주기로 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복지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3월 2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지역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다.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해당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구례군은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빠짐없이 입학준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해 적극

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별도 안내에 따라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입학일 현재 구례군 전 입자로 다른 시·군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다음 달부터 차례대로 읍·면사무소에서 1인당 20만원씩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입학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학생들이 입학 준비에 필요한 도서, 학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입학준비금 외에도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사업, 고등학생 통학요금 지원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군 4개 읍·면에 토양개량제 2816t 공급

28일까지 지역농협서 신청

곡성군은 22일 4개 읍·면에 토양개량제 2816t을 공급하기로 했다. 군은 최근 군청 별관 회의실에서 지역농협과 이장 대표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양개량제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토양개량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토양개량제는 농경지의 유효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 토양개량과 지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3년에 1주기로 읍면을 차례대로 나누어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데, 올해 공급 대상 지역은 곡성읍, 오곡면, 삼기면, 석곡면 4개 읍면 총 1만207필

지(1509ha)다. 규산 8만9744포, 석회 4만7635포, 패화석 3421포 등 총 14만800포(2816t)의 토양개량제를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공급 대상 지역은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옥과면이다. 2025년에는 입면, 겸면, 오산면에 차례대로 공급한다. 올해 토양개량제 공급 단가는 1포당(20kg) 규산질 3100원, 석회질 3480원, 패화석 2610원이다. 톤백(500kg) 공급 희망자는 주소 소재지의 지역농협에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의 개량을 위해 토양개량제를 영농철 이전에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보성군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치매 관리'에 나선다. 지난해 주민들이 치매안심센터 교육을 받는 모습. (보성군 제공)

보성군 고령화 대응 치매 관리 팔 걷었다

경로당 찾아가는 조기 검진 안심센터 다양한 프로그램 안심마을 4곳 서비스 확대

보성군이 종합 치매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고령화에 대응한다. 보성군이 구축하고 있는 '치매 안전망'은 치매환자지원사업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치매 인식 개선사업, 치매 가족 지원사업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지난날부터 보성군은 치매안심센터 전문가가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을 추진하고 있다. 보성지역 12개 읍·면 경로당을 찾아 주 3회 선별 검사와 주 2회 진단 검사를 벌이고 있다. 보성군 치매안심센터는 '기억마중물 프로그램', '스마트 뇌총중 치매예방교실', '안심마을 치매예방프로그램' 등의 치매 관리 프로

그램을 올해 추진한다. '기억마중물 프로그램'은 오는 3~5월 말까지 경증 치매 환자 중 국가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주 3회 총 36회기(회기당 3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는다. '스마트 뇌총중 프로그램'은 3~12월까지 만 75세 이상의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벌인다. 3D 입체 팬을 이용한 인지 예방 활동과 뇌총중 인지 감각 자료(워크북)로 뇌의 인지 자극을 촉구를 심리, 신체활동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보성군이 지정한 치매안심마을도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성지역 안심마을은 보성읍 두슬마을과 택촌마을, 겸백면 능목마을, 득량면 호동마을 4개소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주 2회에 걸쳐 치매 예방·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